

집착 말고 모든 것 그냥 용광로에 놓는 작업만 하라

25면에서 계속

재생이 돼서 나간다. 그것이 집착을 하지 않고 놓는 것이다. 그러면 멸한다. 멸하면 도나라.' 이겁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얘기해 드리죠. 내가 지금 몸에 들어 있는 그 인과응보에 의한 의식 자체를, 수심의 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지배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지배인이 모든 부하를 인솔하는데 마음을 잘 써 주면, 돌이 아니게 써 준다면 그 수심이 마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따라 줍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장 공장, 위 공장, 이 공장 저 공장. 이렇게 여러 군데에 공장이 있어서 마음은 체가 없으니 지배인의 한마음이라면, 내가 지금 살면서 한마음을 잘 쓴다면 이 속에 있는 그 수심의 마리가 한마음으로 뭉쳐 줍니다. 그래서 묘법인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런 공부를 해서 미래에 천당에 간다, 승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자체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따로 없고 미래도 따로 없고 현실 일도 잘나 생활하기 때문에 '무(無)' 이런 겁니다. '공했다'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무척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대하는 겁니다. 책을 보고 이론으로써 학습으로 써 지식으로써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연구해서 체득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행해 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업과 선업이 한데 뭉쳐 있는데 악업도 여러분의 법이 아니고 선업도 여러분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법인가? 여러분이 마음 쓰고 행하는 것이 그대로 법인 겁니다.

왜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까. 용광로에 넣듯이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안되는 것도 잘나 되는 것도 잘나라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가고 오는 것,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남도 그렇고 모두가 말입니다. 그러니 공했던 얘기죠. 그것을 현실로써 널리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나와 상대, 이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으로 뭉쳐서 잘나잘나 돌아가고 있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혜가 생기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집 안에 있다고 해서 안 보인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가깝고 멀고 가 없습니다. 저 우주 전체를 한 찰나에 탐험할 수도 있는 심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내가 용광로에 넣듯이 과거의 업을, 얽히고설킨 인과를, 악업 선업 지은 거를 다, 오는 대로 놓아야 합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전자에 한 것이 현실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번갈아 가면서 용도에 따라서 닦히는 겁니다. 안에서 솟아나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기복으로만 자꾸 나간다면 공덕도 없거니와 이익도 없고 또 세세생생에 나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일체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악업 선업을 다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그럴 때,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큰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또 '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모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의식만 있으면 송장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수심의 마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선업 악업 지은 데서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를 통해서 바로 소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중추 또는 척수 이런 데로, 양쪽에 마이크 세워 놓았듯이 세워 놓은 데서 척수 자체에서 중추를 끼고 도는 그런, 가장자리 양쪽에 붙은 것이 바로 전체를 통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말로 할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닦히는 대로 놓아야 합니다. 잘돼서 좋은 생각이 들어가면 '아유, 참 감사하구나!' 이러는 게 그냥 놓는 겁니다. '내 주인공 참 감사하구나!' 하는 게 놓는 겁니다. 또 안됐으면 '아! 내 주인공밖에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놓는 겁니다. 또,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왜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꾸 창살 없는 감옥에다 자기를 넣고 웅쳐매니 까 나는 되풀이하는 겁니다. 마음이 체가 없

서 우주 전체를 탐험할 수도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당신 마음으로 웅쳐매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 놓는 게 고(苦)고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들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왔다 혼자 가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다섯 가지는 대신 못해 준다고요. 퐁 누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죽는 거, 아픈 거, 이런 거는 대신 못해 줘요.

여러분한테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요만하다면 나도 요만큼밖에 얘기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드림통만 하다면 드림통에 담길 말을 하게 되죠. 바다 같다면 더 말할 거 없이 함이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또 가고 올이 없이 "허허, 물이 없는데 배가 어디 있을꼬? 배가 없는데 탈 게 어디 있으며 건너갈 곳이 없는데 건너갈 게 어디 있나, 내가 공했는데."

과거의 업을, 얽히고설킨 인과를 악업 선업 지은 거를 다 오는대로 놓아야 합니다

아, 이런 말들로 쪽 법문이 들어가죠. 그런데 수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 한 번 잘못 쓰고 행 한 번 잘못 해 가지고 백 번을 고생을 하고 백 마디를 해야 하고,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착을 들 걸 뒤야지 이 몸뚱이도 내 집이란 말입니다. 내 집에도 착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런 것에 착을 두지 마라. 내 집까지도 착을 두지 마라." 왜? 평생 살다가 내 집을 떠날 때 어떻게 이걸 두고 떠나느냐 이거죠. 착을 두면 이 집을 떠나지 못해서 3년이고 4년이고 콩까지 안 떨어져서 억지로 떼듯이 그렇게 아픔을 당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착을 두지 않는다면 내일 가든지 모레 가든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콩이 다 익었으면 훌쩍 까지듯이 건드리기만 해도 까지죠. 그런데 다른 데 착을 둔다면 평생 살던 이 몸뚱이의 착은 어찌 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생활이 생활선이며 그냥 행선입니다. 화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뚱이를 화두로 생각하십시오. 화두

는 따로 없는 것입니다. 남한테서 받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나에게서 그냥 저절로 생겨요. 이 몸뚱이가 난 것이 태초요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집도 되고 화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인과응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쳐서 이 세상에 낮기 때문에 고통어리다 했으니 여러분이 그 고통어리름 녹여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부기간에 살든지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과 살든지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 살든지 사장으로 살든지, 선생님이로 살든지 학생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막론하고 각자 여러분의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을 남한테 전가를 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놈이 잘못해 가지고 집안이 그냥 어수선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학교에서 잘못해서 성가시면 "아이구! 저놈의 자식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러거든요.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체가 다 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상점에 가 보십시오. 강릉은 강릉전에 강릉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자기가 지은 대로 차원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식도 인연이 바로 그런 것이고 부부기간도 인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릉끼리 만나니까 그렇게 얼그렁덜그렁 하죠? 소리가 납니다. '님마는 님마전에 모여 있고' 하는 그 차원이라면 그것끼리 또 모입니다. 그러니 서로 고생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그냥 욕하고 때리고 온통 '이년 저년, 이놈 저놈,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온통 이야 단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아수라장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 몸뚱이로 태어나 가지고 철모를 때 때고 잘 때 때고 늙었을 때 때면 몇 푼어치나 산다고 그렇게 얼그렁덜그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즐겁고 쾌기 있고 자유스럽게, 좋으면 껴껴 웃어도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싸우거든요. 참 이상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말입니다. 그걸 보면 그냥 난 우스워 죽겠어요. 어떤 때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요, 어떤 때는 그냥 웃음이 납니다.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차마다 노랫소리가 흘러나와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소리가 그렇게 퍼져 나오지 않느냐, 울려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의 소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도량이 아닌 데가 하나도 없고 도인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으면서 보니까 네 살 먹은 애가 차에 치여 죽지 않으려고 빨리 뛰어가더라고요. 고것도 도인이더라고요, 하하하...

여러분! 글썽 생각해 보세요. 깨도 불성이 있는 겁니다. 없다고 해도 있는 거고 있다고 해도 없는 거고, 사람에 따라 차원에 따라 그 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부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깨도 차가 오다가 안 오는가 이리저리 둘러보고선 차가 오니까 딱 서는 거예요. 그러곤 차가 딱 지나가니까 촛살같이 건너가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깨도 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부처 노릇을 하시려면 오늘부터라도 그 하지않은 거 가지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좋게 사세요. 부부기간에 살면서도 "여보! 당신 오늘 얼마나 노고가 많았소." 하고 웃고 들어오면 그냥 미안하고 그래서 "여보 당신! 참 얼마나 일하시느라고 애썼느냐." 하고 이렇게 말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라고 들어오면 "아니?" 이렇게 나오지요. "아니, 뭐?" 이렇게, 하하하...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실랑이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법을 못 배워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못 살아요. 자유스럽게 살아야, 먹을 것에도 착을 두지 않아야 들어와요. 돈도 착을 두고 가지려고 애를 쓰면 자꾸 달아나가요. 병고도 딱 놓고 '네가 업보로 인해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모두 뭉치게 한 거니까, 너한테서 나온 거거나 나 알아서 해라.' 아, 이라고 딱 놓으니까 이게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구! 난 내 그릇이나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달아나가거든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9년 10월 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탐구사 전화 02) 702-3557 팩스 02) 702-3558 구입처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운주사, 주요 불교서점

탐구사



한국불교가 몰랐던 중국(대만) 선불교의 진수!

중국에서는 선종의 맥이 끊어졌고 선종의 정통은 한국에 있다고 믿은 것은 한국 불교도들의 근거 없는 신화였다.

대만을 중심으로 일약 부흥하는 중국선의 중심인물 성엄선사, 침체에 빠진 한국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성엄선사의 법문집 시리즈 제4탄!

이 책의 주된 내용

- 화두와 목조에 착수하기 전의 예비 수행에 관한 참신한 안내
- 간명히 정리된 화두선 3단계와 처음 소개되는 목조선 3단계
- 선 수행자들과 선 수행 지도법사가 알아야 할 핵심 사향의 설명
- 감산덕청, 황룡오신, 대혜종고, 평지정각 선사들의 법에 대한 깊이 있는 주석

성엄선서 4

대의단(大疑團)의 타파, 무방법(無方法)의 방법
- 화두선과 목조선의 요체
성엄선사(聖嚴禪師) 말씀 / 대성(大晟) 옮김 416쪽 / 18,000원

수행 불자들의 필독서 - 성엄선서 시리즈

1. 마음의 노래 - 우두법용 선사의 '심경' 강해, 320쪽 / 15,000원
2.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 '신심명', '참동계', '보경삼매가' 강해, 288쪽 / 12,000원
3. 지혜의 검 - '중도가', '반아심경' 강해, 320쪽 / 13,500원
5. 선의 지혜 - 불교에 관한 문답 (간단)

*성엄선서는 계속 출간됩니다.



성엄선사(聖嚴禪師, 1930-2009)
• 동서양을 넘나들며 중국선(Chan)을 세계에 알린 대만불교의 중흥조
• 계, 정, 해 삼학을 두루 겸비하고 선을 드날린 당대 최고의 고승